

##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다방', 토요일 예능 강자 탄생! '모범택시3' 배우들과 폭소 파티!

2025. 11. 17.







제공: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다방>이 지난 15일 첫 영업을 시작했다. 이수지, 정이랑 자매의 현실 캐미 속에 <모범택시3> 배우 이제훈, 김의성, 표예진, 장혁진, 배유람이 첫 손님으로 등장하며 대환장 티타임 토크로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선사했다. <자매다방>은 수지, 이랑 자매가 오늘의 수다 한 스푼, 낭만 두 스푼을 더해 최고의 스타 손님들과 함께 즐기는 다방 토크쇼다.

1회에서는 오늘의 메뉴 ‘쌍화탕’을 중심으로 자매의 좌충우돌 영업기가 펼쳐졌다. 첫 손님 김의성은 쌍화탕을 주문하자마자 정이랑의 괄사 마사지를 얼떨결에 받았고, 이어 ‘더티 커피’를 주문했다가 진짜 ‘더러운 커피’를 받아 경악한 표예진은 결국 쌍화차로 메뉴를 변경했다. 두 사람 모두 <자매다방>의 사훈 ‘한 잔에 손맛과 정성을 담아’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이제훈과 이수지의 팔씨름 대결은 이날의 하이라이트. 패배 후 쌍화차 두 잔과 애교 3종 세트를 선보인 이제훈 덕분에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다. 이어 이수지는 시낭송까지 선보이며 특급 서비스를 이어갔고, 표예진과의 삼각구도가 형성되면서 다방은 웃음바다로 변했다.

배유람과 장혁진까지 합류해 ‘무지개 운수’ 5인방이 완전체로 모이자 <자매다방>은 스타 손님들로 가득찼다. 정이랑은 “일하시려면 기력이 달리시니까”라며 쌍화탕을 권했고, 휴지 뽑기로 자리 정하는 즉석 미팅이 열리며 폭소가 터졌다. 이어 장혁진의 난타 연주에 맞춰 이수지, 정이랑이 춤판을 벌이며 혼돈의 티타임을 완성했다. 마지막엔 배유람과 장혁진이 ‘무지개운수’에 입사, 김의성의 “억울하면 모범택시 부르세요” 애드리브에 배유람의 “저 억울해요!” 응수가 더해져 첫 영업은 웃음 속에 마무리됐다.

와 <직장인들>에 이어 토요일 저녁 웃음 바통을 이어받은 <자매다방>. 편안하게 다방을 찾은 스타 손님들과 정성 가득한 손맛 유머로 첫 회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시청자들은 “하 이건또 뭐야.. 내 도파민 또 나왔네 ㅋㅋㅋ”, “이 둘조합은 진짜 혼존 최강이다”, “보기만해도 웃겨 이거 연기아니다”, “쿠팡 또 치트키쓰네”, “또 지독한 거 들고 나왔네”, “둘다 너무잘해 이조합 찬성이야 즘말~잘해”, “진짜 쿠플 열일한다 칭찬해” 등 유쾌한 반응을 쏟아내며 폭발적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다방>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도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취재 문의 [media@coupa.com](mailto:media@coupa.com)